

아시아의 현대적 전통관현악단들: 정체성의 정치학¹⁾

김희선

1. 들어가며

서양예술음악은 서구제국주의 식민지 경영과 근대기획의 과정을 통해 비서구 지역에 이식되었다. 이식된 근대화의 논리를 통해 비서구 지역에서 서양예술음악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민속 음악들은 주변화, 타자화되고 과거의 것으로 박제화되면서 서양예술음악과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전통/민속음악들은 이후에 민족주의와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복원되거나 “발명”(홍스봄 1983)되어 탈식민지 지형에서 자라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국가/민족적인 것으로 의미화되면서 비서구 지역의 독특한 음악지형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에서 발현된 현대적 전통관현악단²⁾은 서양 교향악의 형태로 전통악기들을 재배치하였다. 이는 전통의 보호와 보존

1) 이 논문은 2010 세계음악학회 학술대회 <한국과 아시아의 국악관현악단: 정체성과 정체성>(2010.6.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 “아시아의 현대와 현대적 전통관현악단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수정 보완하였다.

2) <표1>에서 보듯이 각 지역에서 발현된 전통악기(혹은 전통악기의 개량악기)로 구성된 악단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어서 하나로 지칭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악단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경우 전통악기 관현악단이라 지칭하고, 고유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과 같이 <>와 함께 사용한다.

의 차원을 넘어 현대적 흐름에 편승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전통음악계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지만, 동시에 서구화와 전통의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아시아의 현대적 전통관현악단은 전통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현대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전통/현대, 서구/비서구, 근대/탈근대의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장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현된 다양한 현대적 전통관현악단들을 고찰하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이들 악단들이 단 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 더 나아가 비서구 지역의 다양한 담론들을 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징후들은 상호 교차적으로 고찰할 때 선명해 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시아 현대의 다양한 정체성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새로운 정치적 장을 형성해 나간 현대적 전통관현악단들을 동시에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와 ‘현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아시아의 각 지역에 수용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었는지, 각 지역의 전통음악에서 생존의 전략으로 채택된 현대화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또한 서구를 모델로 한 발전욕망에서 비롯된 유사한 경험의 상이한 의미화 과정의 고찰을 통해 아시아라는 특수한 지역의 현대성의 의미를 사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북한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지역에서 20세기 동안 발현된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전통관현악단들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³⁾

3) 일본은 가장 먼저 서구화를 실천하였고 제국주의를 통해 아시아의 타 지역에 서구화를 이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여 구성상 가장 앞에 두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악단이 발현된 점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화악단들이 본토의 악단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악단은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의 음악이 다른 체제하에서 현대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살펴보고 한민족의 악단인 일본 거주 재일한인의 악단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오케스트라 아시아>와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도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